

日刊紙를 통해 본 住居環境問題의 研究(I)

— 東亞日報(1920年~1990年) 記事 類型의 變遷 —

A Study of Housing Environment Problems through the Daily newspapers(I)

— The Change of a type of the Dong - A daily news papers(1920-1990) —

신 경 주*
Shin, kyung Joo

Abstract

This study discussed the change of housing environmental problems from the early 1900s to the present. The reason is to find the solution of serious housing environment problems.

The documentary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Articles of content analysis(N=1129)were published in 1920(the first edition)to December. 31, 1990 which were The Dong - A daily news article about housing environment.

The main content of this study was examined the change, such as the number of whole article by time series and importance of article(column number of article), classification of article subject, and the number of article by subject.

On the basis of this data, was made by chronological classification of the change of housing environment problems for 70 years.

Since overall results will become supply of right information about housing environment to our peoples, will provide the oppronment that oneself can participate the protection of housing environment, and further will take a part solution of housing environment problems.

At the future, I am going to design deep analysis of article content by subject.

* 정희원, 한양대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I. 序 論

1. 研究背景 및 內容

住居란 人間生活의 根源으로 우리는 이 속에서 衣生活, 食生活, 住生活등의 基本的인 人間生活을 營爲하고있다.

住居가 없으면 우리는 安定된 家庭生活을 할 수 없으므로 住居는 우리 人間에게 가장 중요한 生活의 基本이다.

人間의 住居는 原始시대의 竪穴住居에서 始作하여 오늘날의 現代적인 高層集合住居에 이르기 까지 그 형태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수효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인구수는 1955년에 2152만6천명 이던 것이 1975년에 3470만7천명, 1990년에 4279만3천명으로 증가 하였으며(경제기획원, 1978 1990), 주택수는 1975년 473만 4천호에서 1990년에 757만호로 증가하여(경제기획원, 1990),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住居를 둘러 찬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는 生活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 왔고, 지금도 해결 해야 만할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住居環境問題를 들수 있다.

住居環境問題란 人類의 出現시기에는 地球자체의 自淨作用에 의해서 거론 되지 않았으나 人口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화가 가속되고¹⁾, 산업화가 이루어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에 따른 대량소비 및 대량생산 과정에서 발생된 오수, 매연, 유독가스, 폐기물등이 증가하여 자연 생태계의 정화능력을 잃게 됨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고, 深化하고있다.(尹旣燮, 1990)(朴永圭 外 3人, 1990)(李周 ,

1987)(眞近春歲1976).

인간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살면서 住居環境問題에 대한 被害意識에 극도로 민감해져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人間의 住居環境保護및 問題解決을 위한 知識의 보급과 努力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住居環境問題 해결의 한 방법으로 주거환경문제의 양상이 지금과는 달랐고 住居環境公害가 거론 되지 않았던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개화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住居環境問題의 變化추이를 考察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國民에게 住居環境에 관한 바른 知識을 보급함과 동시에 스스로 住居環境保護에 동참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한다.

住居環境問題를 고찰하는 방법은 資料分析法과 面接法을 생각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資料分析法을 선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현존하는 70년전의 유일한 계속적 기록자료로 日刊紙를 선택하였다.²⁾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발간 된 日刊紙는 每日新報이나 발행기간이(1910년~1945년)한정 되어 있으며, 주거환경관련 기사가 극히 제한되어(수십편에 불과), 분석이 불가능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로 우리나라 4대 일간지중 1920년 창간시 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발행 되고 있는 동아일보를 1차적으로 선정하여 우리나라 주거 환경문제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고찰 하였다.

본 연구의 基本的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年度別 총 기사수의 變化檢討
- 2) 年度別 記事比重의 變化檢討
- 3) 記事의 主題別 分類
- 4) 主題別 記事數의 變化檢討

2) 분석자료로 주거관련잡지와 정부관련 부처의 통계 자료를 고려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주거관련잡지는 1960년대 이후부터 발간되었으며, 통계자료는 특히 단편적인것으로 주거환경문제의 계속적인 연도별 변화를 볼수 없었다.

1) 1955년의 市部와 郡部의 인구비는 24.5 : 75.0이었으며, 1975년은 48.4 : 51.6, 1985년은 65.4 : 34.6으로 30년간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율이 농촌중심에서 반대로 도시중심으로 바뀌었다.

5) 70年間の 住居環境問題 變遷의 時代區分.

2. 주거환경의 범위

환경이란(박창근, 1983)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으로 尹昨燮(1990)은 환경의 영역을 “① 상수 ② 배수처리와 수질오염 ③ 고형폐기물처리, 산업폐기물처리, 분뇨처리, 슬러지처리 ④ 유해곤충, 질죽동물, 연체동물, 설치류와 중간숙주의 구제 ⑤ 인간의 오물 및 인간, 동물, 식물에 대한 유해물질에 따른 토양오염의 예방과 관리 ⑥ 식품오염 ⑦ 대기오염 ⑧ 방사선오염 ⑨ 노동위생 특히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협방지 ⑩ 소음방지 ⑪ 주택과 근접환경 특히 주택, 공립 및 공공건물의 공중위생의 방향 ⑫ 공수, 해상수송 및 육지수송의 환경보전 ⑬ 공공레크리에이션과 관광여행 특히 공공해안, 수영장, 캠프장 등의 환경보전 ⑭ 전염병, 구급, 재해와 인구문제로 구분하였다.

日本家庭學會(1989)는 생활환경을 “일상생활을 둘러싼 가까운 범위의 환경”이란 의미로 해석하여 인간이 건강하게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 기반으로서의 도시와 농촌의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및 문화성(Amenity)(※필자의 번역에 따름)이 보존되면서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범위에서 住居環境(居住環境)은 近隣이나 住區 정도의 住居 주변의 환경을 논할 때 사용된다고 정의 하였다. 近隣이나 住區란 Dr. Doxiadis의 Ekistic Hierarchy(北村君外 2名, 1970)에 의하면 近隣은 주부가 유아의 집밖 보육등에서 형성하는 단위로 인구 수백명($N \times 10^2$) 규모이며, 住區는 학교와 상점을 매개로 통학, 구매 등이 이루어지는 범위로 인구 수천명($N \times 10^3$) 규모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을 참고로 인구 수천명 규모의 주거환경에서 인간이 생활할 때 이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 환경문제를 주거환경의 범위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면 상수도원이 오염되면 우리의 식수가 오염되어

직접적인 피해를 파생시키므로 이것도 주거환경 문제에 포함시켰으며, 분진이 날아와서 세탁물을 더럽힌다는 기사등도 주거환경문제 포함시켰다.

II. 研究方法

1. 資料收集

우리나라 住居環境問題의 變化推移(1920年~1990年)을 考察하기 위하여 資料分析方法을 선택하였다.

분석자료는 임의로 동아일보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신문이 현재까지 거의 70년간을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발행 부수 면에서 4대일간지로 꼽히면서, 약 40年間の 記事索引集이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20年 창간호 부터~1990年12월 31일 사이의 동아일보 주거환경관련 기사로 수집 가능했던 1129개 기사가 이용되었다.

자료의 수집 방법은 먼저 1920年~1962年사이의 자료는 A₄규격 8권으로 구성된 동아일보기사 색인집(동아일보사, 1975)에서 주거관련단어(가·나·다순 수록)를 선택하여 해당기사 목록을 복사하였다. 2차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주거환경관련 기사 색인집을 재정리 하였다. 이를 기본으로 한양대 정기간행물실을 통해 1~2개월 단위로 제본 보관된 신문철 200여권을 검토하여 해당 기사를 확인 복사 하였다. 수집 불가능한 기사는 국회 도서관 마이크로 필름실에서 필름을 통해 검색 복사 하였다. 색인집 목차상에는 있으나 해당 신문에 없는 것, 신문제본철에서 부분적으로 결손되었거나 필름이 접혀진 채 촬영되어 읽을 수 없는 것은 제외 시켰다.

1963년~1990년 사이의 자료는(색인집 미발행) 한양대 및 국회 정기간행물실에서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이 1개월 단위로 제본 보관된 270여권의 신문을 확인하여 복사 수집 하였다. 그후 이 자료를 주거 전공자가 재확인 선별 선택하였다. 이렇

게 수집된 주거 환경관련 기사는 1300여개로 이중 관련성이 희박한 것을 제외한 1129件을 최종 분석 자료로 선정 하였다.

2. 資料分析

① 年度別 총 기사수의 변화를 검토 하였다.

이 경우는 기사의 般數, 面數, 量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각 한 제목의 기사는 1개로 취급하여 1년, 10년 단위로 그 변화를 검토하였다.

② 年度別 記事比重의 變化를 검토하였다.

이 경우는 기사 비중의 측정 도구로 記事의 般數를 선택하여 1~2단, 3~4단, 5단 이상의 기사로 구분 하였다.

기사 단수의 측정 방법은 신문사 방식에 아 기사가 몇단에 걸쳐서 게재되어 있는지에 관계 없이 기사의 제목 및 표제어의 단수를 기사 단수로 하여 역시 1년, 10년 단위로 그 변화를 검토하였다.

③ 기사의 主題別 분류를 시도 하였다.

이 경우는 般數등에 관계없이 기사의 순수 내용에 의해 구분 하였다. 내용이 복합적인 경우는 그 중 내용 언급이 많이 된 쪽으로 포함 시켰다.

주제별 분류시는 각 주제별로 70년간의 年次的 변화 고찰의 가능성에 비중을 두었다(추후 연구 예정).

④ 住居環境 主題別 記事數의 變化를 檢討하였다.

주거환경의 주제는 ③의 주제별 분류 [(i)오물(변소 포함), (ii)쓰레기, (iii)공해, (iv)그외 환경관련]에 따라 분류한 후 이에 준하여 1년, 10년, 단위로 그 변화를 검토하였다.

⑤ 70年間의 住居環境問題 變遷의 시대구분을 시도 하였다.

위의 경우는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대 구획을 시도 하였다.

〈표 1〉 주거환경 관련 총기사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

연도	10년단위	5년단위	연도	연도	연도	연도
1920	3		55	2		
21	10		56	0	24	
22	26	63	57	3	(2.4)	9
23	19	(12.6)	58	0		(1.8)
24	5	104	59	4		
25	11	(10.4)	1960	2		
26	6		61	8		
27	9	41	62	7		22
28	15	(8.2)	63	3		(4.4)
29	0		64	2	37	
1930	1		65	0	(3.7)	
31	3		66	0		
32	11	42	67	1		15
33	12	(8.4)	68	5		
34	15	151	69	9		
35	16	(15.1)	1970	17		
36	38		71	36		
37	33	109	72	19		138
38	16	(21.8)	73	32		(27.6)
39	6		74	34	329	
1940	5		75	27	(32.9)	
41			76	33		
42		5	77	26		191
43		(5)	78	42		
44			79	63		
45	0	24	1980	36		
46	2		81	22		
47	2	19	82	33		142
48	10	(21.8)	83	28		(28.4)
49	5?		84	23	338	
1950	2		85	20	(33.8)	
51	1		86	22		
52	0	15	87	34		196
53	4	(3)	88	39		(39.2)
54	8		89	81		
			1990	122	122(122)	122(122)
			총기사수(평균기사수)	합계		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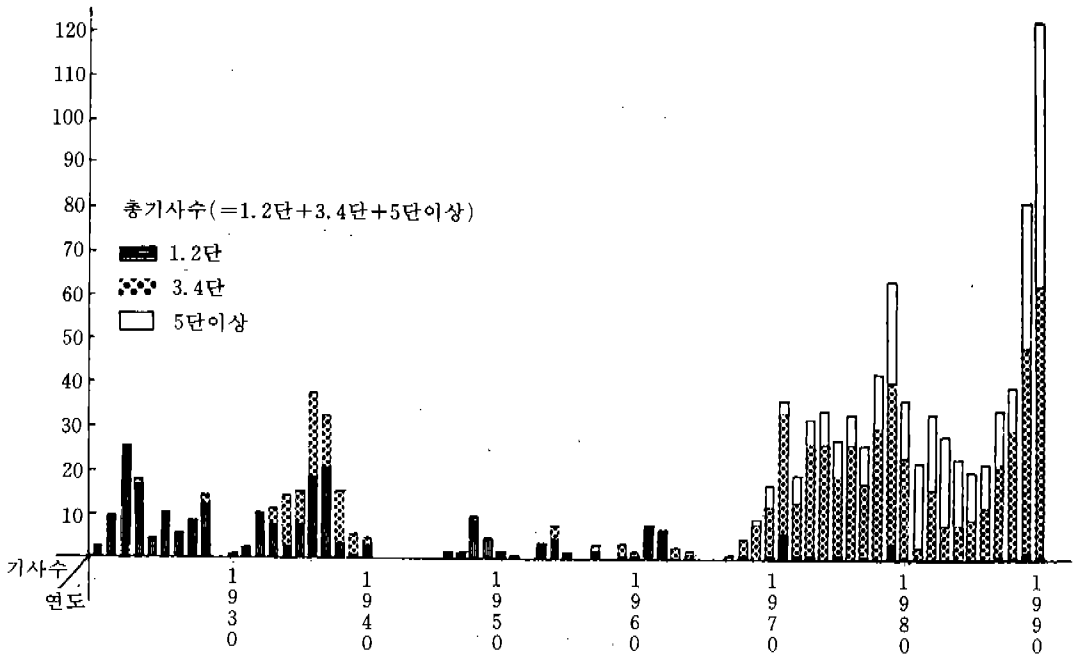
Ⅲ. 研究結果 및 解析

1. 총 기사수의 변화추이

본 연구에서 주거환경관련 총 기사수의 분석에 사용한 기사는 1129개로 이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기사 분포 상황을 표1에 제시 하였다.

1년간의 총 기사수는 입수 된 기사를 동일 연도로 구분하여 합산 한 것이며 10년간은 1920~1929

년 등으로 구분, 각 기간의 기사수를 합산하여 합계를 산출하고 이 기간의 평균 기사수는 이를 10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기사가 없었던 해는 0으로 하여 합산 하였으며, 신문이 발행되지 않은 시기는 평균 산출시 이 연도를 뺀 수로 나누어 산출 하였다. 따라서 신문이 발행되지 않은 시기는 총 기사수가 적어지나(예 1941~44년 정간시기), 평균은 다른 연도와 동일 비중이 되었다.



〈그림 1〉 주거환경 관련 총 기사수 및 기사 단수의 연도별 변화추이

먼저 각 연도별 총 기사수를 살펴보면 1929년, 1958년, 1965년, 1966년이 기사수0으로 가장 적고, 1990년이 12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70년간의 평균기사수는 16개이었다.

총 기사수가 10건 미만인 연도는 1920년대 중반 ~30년대 초반에 일부 나타났으나 주로 1939년~1969년의 30년간에 집중되어 있었다(1920년, 1924

년, 1926년, 1927년, 1929년, 1930년, 1931년, 1940년, 1945년, 1946년, 1947년, 1949년., 1950년~1969년)총 기사수가 10개이상 30개 미만인 시기는 1920년대 일부, 1930년대 초반, 1970년과 1980년에 일부 나타났다(1921년~1923년, 1928년, 1932년~1935년, 1938년, 1970년, 1972년, 1975년, 1977년, 1981년, 1986년).

총기사수가 30개 이상인 시기는 1936년 1937년을 제외하고는 1971년~1982년 및 1987년~1990년 사이에 나타났다. (1936년, 1937년, 1971년, 1973~1976년, 1978년~1980년, 1982년, 1987년~1990년)

다음으로 10년간의 연대별 총기사수 및 평균 기사수를 살펴보면 10년 평균이 5개미만 이었던 시기는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각각 4개, 2.4개, 3.7개)이었다.

평균 5개이상 10개미만 이었던 시기는 1920년대, 1930년대(각각 10.4개, 15.1개)이었다.

평균 30개이상 이었던 시기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각각 32.9개, 33.8개, 122개)이었다.

즉 1920년대에 가까울수록 총기사수가 적고, 1970년대 초반 이후에 급격히 총기사수가 많아지며, 연도별 및 10년별 총기사수와 평균 기사수도 근년에 가까워 질수록 많아졌다.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기사수가 1940년, 1950년, 1960년대 보다 더 많았다.

이는 1920년 3월 5일 동아일보가 창간 된 후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지위향상운동이 일어나 1930년대는 여성의 지위가 확고해진 시기로(金淑鉉, 1973). 가정과 주거를 둘러싼 기사의 비중이 다소 높았고 볼수 있겠다. 그 후 1940년대는 일제의 식민지 시기로 1950년의 전쟁시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으며, 전쟁의 여파가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 안으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1950년 GNP 123\$, 1960년 373\$, 1970년 1536\$)(경제기획원 1985)밖으로는 1972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³⁾로 세계적인 관심이 인간의 생활환경에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주거환경관련 기사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이경향이 1980년대까지 계속되다가 1990년에는 극단적으로 기사수가 증가하였다.

3)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란 1972년 6월 5일~16일 사이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인간환경의 보전과 향상에 관해 세계인을 고무하고 인도하기 위한 공통의 사상과 원칙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 회의중 6월 15일에 7개조의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총기사수는 신문면수와 비례하지 않았으나 신문면수가 20면으로 증면된 1990년에는 그 기사수가 급격히 증가 하였다.⁴⁾

2. 年度別 記事 般數의 變化

기사의 중요도를 추측하는 척도로 기사의 단수를 생각 할 수 있다. 중요한 기사는 그 단수가 커지고 중요도가 낮은 기사는 그 단수가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에 이용된 1129개 기사의 단수를 1~2단과 3~4단, 5단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표2)(그림1) 1920년대는 1~2단 기사가 대부분이며, 1923년과 1928년에 3~4단 기사가 일부 나타난 정도에 그쳤다.

그 후 1933년을 기점으로 3~4단의 기사 비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1945년~1962년 사이는 1~2단 기사가 대부분을 점하여 주거환경기사의 중요도가 다시 낮아졌음을 알수 있었다. (예외 1954년, 1959년).

5단이상의 톱 기사가 나타난 것은 1957년으로 쓰레기에 관한 기사였다. 「코를 찌를때 마다 당국원망 -안쳐가는 쓰레기에 서울 시민의 소리-」(동아일보, 1957)라는 제목으로 청소사가 쓰레기를 안쳐가서 가는 곳마다 산더미처럼 쌓이며, 밤을 타서 쓰레기를 길에다 버리므로 각 지역별로 쓰레기가 쌓여 이 현황을 보고 하고 있었다.

그 후 1964년에 다시 한번 나타났는데 이때는 기타공해로 구분된 소음관련 내용으로 「소음속의 국립도서관 -도서관간 이라지만-」(동아일보, 1964)이란 제목으로 땅값이 비싸고 시끄러운 도심

4) 동아일보의 총 면수는 1920년~1925년 소형 8면에서 1925년~1931년 6면(조간+석간), 1933년~1935년은 6면(조간), 1936년+1939년은 12면(조간+석간), 1940년 10면, 1945년~1955년은 증대판 2면, 1955년~1962년은 8면(조간+석간), 1962년~1981년은 8면(석간), 1981년~1986년은 12면(석간) 1986년~1989년은 16면(석간), 1990년은 20면(석간)으로 변화하였다.

〈표 2〉 주거환경 관련 기사 단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

연도	연도별			10년 단위		
	1,2	3,4	5이상	1,2	3,4	5이상
1920	3					
21	10					
22	26					
23	18	1				
24	5			101	3	0
25	11			(10.1)	(0.3)	(0)
26	6					
27	9					
28	13	2				
29						
1930	1					
31	3					
32	11					
33	8	4				
34	3	12		79	72	0
35	8	8		(7.9)	(7.2)	(0)
36	19	19				
37	21	12				
38	4	12				
39	1	5				
1940	3	2				
41						
42						
43						
44				21	3	0
45				(2.1)	(0.3)	(0)
46	2					
47	2					
48	9	1				
49	5					
1950	2					
51	1					
52						
53	4					
54	5	3				
55	2					
56						17 6 1
57	2					1 (1.7) (0.6) (0.1)
58						
59	1	3				
1960	1	1				
61	8					
62	7					
63	3					
64	1					1 17 18 2
65						(1.7) (1.8) (0.2)
66						
67	1					
68	1					4
69	8					1
1970	1	11				5
71	6	27				3
72	1	12				6
73	1	25				6
74	26					8 15 227 87
75	1	18				8 (1.5) (22.7) (8.7)
76	26					7
77	1	16				9
78	30					12
79	4					36 23
1980	1					22 13
81	3					19
82	16					17
83	8					20
84	8					15 5 173 160
85	9					11 (0.5) (17.3) (16.0)
86	12					10
87	1	21				12
88	1	28				10
89	2	46				33
1990	1	61				60 1 61 60
합계						1,129

복판의 도서관을 팔아서 더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좌석수를 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후는 1968년까지 5단 이상의 기사가 없었다. 1969년을 기점으로 5단 이상의 기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는 5단 이상 기사가 30%선을 유지하다가 1979년과 1980년에는 50%선 까지 증가 하여 (우리나라 환경청이 신설된 해임) 1981년~1985년은 오히려 3~4단을 상회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이후 다시 3~4단 기사가 주류를 이루다가 (5단 이상 30%선), 1990년(환경청이 환경처로 기구확대 개편된 해임)에 5단 이상 기사가 50%로 증가 하였다.

다음으로 10년간의 연대별 기사 단수를 살펴보면 1920년대는 1~2단 기사가 97%를 차지하다가 1930년대는 1~2단 기사 52%, 3~4단 기사 47%로 3~4단 기사가 증가 하였다. 1940년과 1950년대는 다시 1~2단 기사가 중심이 되었다가(각각 87.5%, 70.8%)60년대에 들어서 이 경향이 다시 1930년대와 같아졌다. (1~2단 기사 45.9%, 3~4단 기사 48.7%).

그후 1970년대는 3~4단 기사가 69%로 주류를 이루다가 1980년대는 5단 이상 기사의 비율이 더 증가하여 3~4단 기사 51%, 5단 이상 기사 47%였으며, 1990년대는 3~4단과 5단 이상 기사가 각각 50%씩 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1920년대는 1~2단 기사시대에서 1933~1939년 3~4단 기사 출현시기를 거쳐서 다시 1940년, 1950년은 1~2단 기사 시기가 계속되었다. 1960년대는 1~2단과 3~4단 기사의 공존시기 이었으며, 1969년부터 5단 이상 기사가 출현 하였다. 그 후 1970년~1990년 사이는 3~4단과 5단 이상 기사의 공존 시기 이었다.⁵⁾

이는 1920년대의 주거환경문제 초기단계에서 1930년대에 들어서 주거환경문제의 중요도가 일부

5) 1970년~1978년사이에는 3~4단 기사 비율이 5단 이상 기사의 2배 이었으며, 1979년~1985년사이에는 3~4단 기사 비율이 5단 이상 기사와 동일 비율이 되었다가 그후 1987년~1989년은 5단 이상 기사의 비율이 줄어서 3~4단 이상 기사가 다시 2배를 차지하다가 1990년에는 5단 이상 기사와 동일 비율이 되었다.

자각 되었다고 보겠다. 그후 20년간의 전쟁 공백 시기를 거쳐서 1970년대 초반부터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생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일반인의 환경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고 보겠으며 이후 근년에 가까워지면서 주거환경문제와 주거환경의식이 모두 높아지고 있다고 보겠다.

3. 記事의 主題別 分類

수집된 1129의 기사를 공통점에 따라 몇개의 항목으로 분류 하였다.

분류의 기준은 (i)내용에 공통점이 있으며 (ii)그 속에서 연도별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 표3과 같이 크게 4가지 주제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오물(및 변소)문제, 두번째는 쓰레기 문제, 세번째는 공해문제, 네번째는 그의 환경관련문제이다.

이중 세번째의 공해문제는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 및 기타공해로 제 분류 되었다.

먼저 오물문제를 살펴보면 분뇨처리장 분뇨의

〈표 3〉 주거환경 관련 기사의 주제분류 및 주제별로 포함된 내용

오물, 변소	쓰레기	공 해		그의 환경 관련
오물 분뇨처리장(신설, 이전) 오물수거경비 오물비료이용 분뇨 넘침 오물, 변소위생	산, 도심, 농촌의 쓰레기 쓰레기 매립지(신설, 정비) 쓰레기(수거, 수거료, 운반방식) 쓰레기 분리 수거 쓰레기 재활용 산업 쓰레기 도심 청소	대기오염 오존층 파괴 스모그 현상 탄가루, 먼지 차량공해 공해공장 산성비 대기오염측정 및 단속 환경문제논의	수질오염 식수원, 수도물오염 수질오염(세계, 농약 공장폐수, 생활하수 하천개발) 수질오염관련질병 수질개선노력 법규, 단속	건물용적율 실내공기오염 수해, 홍수방지 그린벨트(설정, 관리, 훼손) 상수도(누수, 동파, 개발) 하수도(시설, 처리용량) 급수난, 식수난, 수도료
변소 공동변소 수세식변소 변소의 위생설비 변소의 개조 및 개량 변소의 실내		기타공해 농촌공해, 식품공해 직업병 간판공해, 광고공해	전자파, 최루탄공해 소음, 악취 공해대책, 추방운동, 관련좌담	

비료이용, 분뇨넘침, 변소등의 기사가 포함되었다.

쓰레기 문제에서는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운반,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산업쓰레기 등이 포함되었다.

공해문제에서는 먼저 대기오염을 보면 오존층 파괴, 스모그현상, 분진, 차량공해, 대기오염측정 및 단속, 환경문제논의 등이 포함되었다. 수질오염에는 수도물오염, 세계, 농약, 공장폐수, 생활하수, 수질오염 관련질병, 공해관련법규등이 포함 되었

다.

기타공해에는 요즘읍 대두 되고있는 공해문제에 속하면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과는 관계가 적은 문제로 농촌공해, 식품공해, 간판공해, 광고공해, 전자파공해, 최루탄공해등이 포함되었다.

그외 환경관련 문제에서는 3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주거환경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로 건물의 용적율, 실내공기오염, 수해, 그린벨트, 상수도누수 및 동파, 하수도 시설 및 처리용량등이 포함 되었다.

〈표 4〉 주거환경 관련기사의 주제별 연도별 기사수의 변화

연도	연도별				10년 단위														
	오물 변소	쓰레기	공해		그외관 경관	오물 변소	쓰레기	공해		그외관 경관									
			수질	대기				수질	대기										
1920	3																		
21	8	2																	
22	20	6																	
23	8	11																	
24	4	1			69	26	8	0	0	1									
25	8	2			(6.9)	(2.6)	(0.8)	(0)	(0)	(0.1)									
26	5	1																	
27	8	1																	
28	5	2	8																
29																			
1930	1																		
31	1	2																	
32	8	2	1																
33	9	3																	
34	12	3			102	45	3	0	0	1									
35	12	3	1		(10.2)	(4.5)	(0.3)	(0)	(0)	(0.1)									
36	32	5	1																
37	12	21																	
38	11	4																	
39	4	2																	
1940	3	2																	
41																			
42																			
43																			
44					8	16	0	0	0	0									
45					(1.6)	(2.7)	(0)	(0)	(0)	(0)									
46	1	1																	
47	1	1																	
48	2	8																	
49	1	4																	
1950	2																		
51	1																		
52																			
53	4																		
54	4	4																	
55		2									15	8	1	0	0	0			
56											(1.5)	(0.8)	(0.1)	(0)	(0)	(0)			
57	2	1																	
58																			
59	2	1	1																
1960	1	1																	
61	2	6																	
62	3	4																	
63			1	2															
64	1			1							7	12	2	4	10	2			
65																			
66																			
67		1																	
68				5															
1970		1	2	6	2	6													
71		1	1	6	15	13													
72		1	4	1	5	8													
73	3	2	7	7	5	8													
74	1	4	8	2	8	11	9	33	69	46	104	68							
75	1		6	1	14	5	(0.9)	(3.3)	(6.9)	(4.6)	(10.4)	(6.8)							
76	1	5	5	9	6	7													
77		2	9	3	11	1													
78	1	13	4	4	15	5													
79	2	4	23	7	23	4													
1980	3	3	10	3	16	1													
81		5	9	3	3	2													
82		9	9	2	10	3													
83	1	2	10	7	5	3													
84		2	5	4	7	5	7	44	112	49	92	34							
85		2	5	2	9	2	(0.7)	(4.4)	(11.2)	(4.9)	(9.2)	(3.4)							
86		3	4	4	11														
87	2	6	14	3	7	2													
88	1	4	13	10	6	5													
89		8	33	11	18														
1990		25	30	18	31	18	0	25	30	18	31	18							
							(0)	(25)	(30)	(18)	(31)	(18)							

4. 主題別 記事數의 變化

주거환경 관련기사 1129개를 통하여 주거환경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이중 공해는 3가지로 다시 세분하여 이에 준하여 주거환경종류별 기사수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먼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표 4) 오물관련문제는 1920년~1931년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오다가(1929년 제외), 1932년 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38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다시 줄어들어 동아일보의 停刊시기(1941년~1944년)를 거쳐 1951년까지 계속 미미하게 연결 되었다. 그후 6.25사변이후 1953년, 1954년에 다소 증가를 보이다가 산발적으로 되어 1962년까지 계속 되었으며, 그뒤 일시 중단 되었다. 그후 다시 1973년부터 1988년까지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0년간을 살펴보면 1920년에 평균 6.9건, 1930년대에 평균 10.2건 등으로 집중적으로 오물기사가 수집되었으며, 그이후는 낮은을 보였다. 1940년대, 1950년대는 평균 1~2건씩 보였으나 그 이후는 1건 미만으로 1990년대는 없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따른 가정주변문제에의 관심고조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1920년~1945년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에 위생과가 설치되어(尹昨燮, 1990, 9.17)우리나라 오물에 관한 위생적인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그후는 각 가정에 변소가 설치됨에 따라 이 문제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유추된다.

다음으로 쓰레기문제는 1941년~1945년의 정간시기를 제외하고는 1920년부터 1949년까지 거의 2~3개씩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사수에서는 오물의 흠이하에 불과 하였지만 지속적인 관심사였다.

그후 1950년 6.25사변을 맞아 이후 몇년 보이지 않다가 1954년~1962년까지 꾸준히 나타났다. 그후 1960년대의 중반과 하반기에 기사가 없었고 다시 1970년대에 미미하게 이어져서 1990년까지 계속되었다. 그 사이에 1978년(국제연합의 인간환경선언

에 이어 자연보호현장 제정), 1982년(나이로비 선언으로 환경회복운동이 일어난 해임)등과 같이 다소 수적인 증가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1990년(우리나라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에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10년간을 살펴보면 1920년, 1930년, 1940년대(각각 2.6건, 4.5건, 2.7건)는 비교적 기사가 계속 되었으며, 그후 1950년, 1960년대는 1건 전후에 머물렀다. 그후 1970년과 1980년에 다시 증가(각각 3.4건, 4.4건)하여 1990년대는 극단적으로 많아졌다. 이는 1920년, 1930년대는 우선 오물로 인한 환경문제가 더욱 시급 하였으므로 쓰레기 문제가 방치 되어있었으며, 그후 1950년대는 전쟁으로 다른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었다. 1960년 전쟁복구및 경제부흥기를 거쳐 오물 문제가 어느정도 수그러들자 1970년, 1980년대에 증가를 보이다가 산업 발달과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쓰레기의 양적인 증가와 핵폐기물 등의 특수 쓰레기까지 발생됨에 따라 그 중요도가 더욱 증가 되었다고 보겠다.

공해문제의 경우는 1928년에 처음으로 수질오염이 8건 나타났으나(분뇨가 강으로 방류되어 우리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다는 경미한 공해 표현이었음), 그후 1960년대까지 거의 모든 공해 기사가 등장하지 않았다. 1968년에 기타 공해가 보이기 시작하여 그후 1990년 까지 수질오염, 대기오염등의 모든 공해기사가 계속 되고 있으며, 그 수가 크게 증가 하였다. 이중에서도 1970년대는 대기오염 기사가 많다가 1980년대에는 수질오염이 더욱 증가 하였다.

다음으로 10년간을 살펴보면 수질오염만이 1920년, 1930년대에 1건 미만으로 보이다가 1940년, 1950년, 1960년에는 거의 없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 다시 기타공해 10.4건, 수질공해 6.9건, 대기오염 4.6건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후 1980년대에는 수질오염, 기타공해 대기오염(각각 평균 11.2건, 9.2건, 4.9건)순으로 나타나 1970년대 와서는 기사비중의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그의 환경관련기사는 1925년과 1938년의 1건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으며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이중에서는 1972년 인간환경선언이 이루어진 시기를 전후하여 기사수가 많았으며, 그후 다시 적어졌다.

다음은 10년간을 살펴보면 1920년에서 1960년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할수 있으며, 1970년에 들어서서 평균 6.8건으로 높다가 1980년대는 다시 평균 3.4건으로 낮아졌다가 1990년 18건으로 다시 높아졌다. 이는 1980년대에 기타공해가 1970년대에 비해 높아진것으로 미루어 환경문제의 양상이 단순한 환경차원에서 공해문제로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볼수 있겠다.

5. 70년간 주거환경문제 변천의 시대구분

앞에서 검토한 주거환경관련 총기사수의 변화, 기사비중의 변화, 주제의 분류, 주제별 기사수의 변화등을 종합하여 1920년~1990년 사이 70년간의 주거환경문제 변천은 다음과 같이 시대구분이 가능하였다.

① 初步的 問題期(1920년~1938년사이)

1920년 3월 5일 동아일보가 창간된후(동아일보사, 1975), 1920년대와 1930년대는 1919년 3.1운동에 실패한 후 사회전반적으로 계몽주의적 기운이 강했던 시기로 실력양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생활의 과학화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특히 여성의 지위향상의 소리가 높았던 시기로(김숙현, 1973), 여기에 조선총독부의 위생과 신설의 영향이 더해져서 가정을 둘러싼 초보적인 환경문제가 거론된 시기로 볼 수 있겠다.

이 시기의 총기사수는 249개로 연평균 기사수는 13.1개 이었으며, 70년간의 총기사수의 22.1%를 차지 하였다.

기사의 내용은 오물문제가 70.3%(175개)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이 쓰레기문제로 27.7%(69개)를 차지 하였다.

즉 길가에 오물이 넘치고, 쓰레기가 쌓였으며, 오물을 이용한 비료생산의 이권다툼등이 주된 기사 내용으로 그의 환경관련 기사는 전무한 시기이었다. 따라서 기사의 비중도 낮아서 대부분이 1~2단 기사로 3~4단 기사는 후반기에 일부 나타난 수준이었다.

② 無意識期(1940년~1968년 사이)

이 시기는 한일합방의 후반기와 1945년 8월 15일의 해방, 1950년의 6.25사변등 등으로 극도로 힘들었던 시기로 1941년~1945년 사이는 신문이 정간되었었다.

이 시기의 총기사수는 78개뿐으로 29년이란 긴 시기임에도 불과하고 70년간의 총기사수의 6.9%를 차지, 연평균 기사수도 2.7개 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오물문제 38.5%(30개), 쓰레기문제 48.7%(38개)로 초보적문제기보다 오물문제의 비중이 다소 낮아진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후반부에 공해문제가 몇건 보인 정도 이었다.

기사의 비중은 역시 1~2단이 주로 이 시기의 초반부와 말기에 3~4단 기사가 일부나타난 정도였다. 즉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던 시기로 기사수, 기사비중, 기사내용등이 초보적 문제기와 별차가 없으면서 오히려 기사수는 극단적으로 적었다.

③ 關心高調期(1969년~1989년 사이)

이시기는 안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으로 다소 경제가 회복되어 상승기에 돌입, 국민 GNP가 1000\$수준을 넘게 되었으며, 밖으로는 세계적으로 인간 환경선언문이 채택되어 환경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시기로 기사수 338개로 70년간의 총 기사수의 29.9%를 차지 하였다.

연평균 기사수도 33.8건으로 무척 높은 시기이며, 기사의 내용면에서는 오물문제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줄면서 주로 공해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로 66.6%(225개)를 차지 하였다. 그의 기타 환경문제의 비중이 서서히 높아지는 시기로 20.7%(70개)를 차지 하였다.

기사의 비중도 3~4단이 주류를 이루며 5단이상

이 상승을 차지 하였다.

공해문제 중에서는 수질오염 20%선, 대기오염 15%선, 기타공해 31%로, 공해의 종류가 다양해진 시기로도 볼수 있었다.

④ 關心 集中期(1989년~1990년)

1989년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돌입한 후 대중소비시대에 속하며, 신문의 면수도 16면에서 다시 20면으로 증가된 시기이다.

이시기는 2년으로 70년간의 총기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9%로 높지 않으나 실제로는 연평균 기사수 101개로 가장 많은 시기이었다.

기사 내용에서는 공해문제가 69.5%(141개)로 가장 높았으며, 쓰레기문제 16.3% 그외 환경문제 14.2%의 비중 이었다.

기사의 비중을 살펴보면 3~4단이 52.7%(107개), 5단 이상이 45.8%로 전반적으로 기사의 비중도 높은시기 이었다.

공해기사 중에서는 수질공해가 22.7%, 기타공해가 24.1%로 높았다.

IV. 結論 및 提言

1. 結 論

본 연구는 오늘날 심각해진 주거환경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주거환경문제의 양상이 지금과 달랐고, 주거환경공해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던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간 70년간의 주거환경문제의 변화추이를 고찰 하였다.

연구자료는 1920~1990년 사이의 동아일보 주거환경관계 기사 1129개로 이를 가지고 연도별 총기사수의 변화, 기사비중의 변화기사의 주제 분류등을 검토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70년간의 주거환경문제 변천의 시대구분을 하였다.

위의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주거환경에 관한 바른 지식의 보급에 기여 함과 동시에 나아가 스스로 주거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거환경문제 해결의 일익을 담당 할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관련 총 기사수의 분류에서 1920년과 1930년을 제외하고는 근년에 가까울수록 기사수가 많으며, 1970년대 초반이후 급격히 기사수가 증가함을 알았다. 총기사수는 신문면수와는 비례하지 않았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다. 70년간의 평균 기사수는 16개, 많은 해는 122개, 적은 해는 0개로 그 폭이 컸다.

2) 주거환경관련 기사의 단수는 1920년대는 1~2단이 주였으며, 근년에 가까울수록 기사의 단수가 커져, 1990년에는 5단이상 기사가 50%이상을 차지 하였다. 1960년대는 1~2단과 3~4단 기사의 공존시기 이었으며, 1970년~1990년 사이는 3~4단과 5단이상 기사의 공존시기이었다.

3) 주거환경관련 기사는 크게 4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①오물문제(변소포함) ②쓰레기문제 ③공해문제 ④그외 환경관련문제이다. 이중 공해문제는 다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및 기타공해로 세분되었다.

4) 주거환경관련 기사의 주제별 기사수의 변화는 오물문제는 1920년~1938년까지 꾸준히 계속되다가(평균 9.2개), 그후 급격히 줄어들어 없어졌으며, 쓰레기 문제는 1920년부터 1949년까지 계속되다가 그 후 20년간 없었으나 다시 1970년대에 보이기 시작하여 근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공해문제는 경미한 수질오염 기사가 1928년에 나타난후, 본격적인 공해기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 되었다. 1970년대는 대기오염문제가 1980년대는 수질오염문제가 증가하여 1990년 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점차 공해의 종류가 증가 하였다.

5) 주거 환경문제중 그외 환경관계 기사는 역시 1960년대 후반 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가장 기사수가 많았던 시기는 인간환경선언(1972년)을 전후 하여서 이며 그후 감소하였다.

6) 70년간의 주거환경문제의 변천은 ① 初步的 문제기(1920년~1938년) ② 無意識期(1940년~1968

년사이) ③ 關心高調期(1969년~1989년) ④ 關心集中期(1989~1990년)의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2. 제 언

본 연구에서는 기사수집에서 다소 누락된 것이 있을수 있으며 또 각 주제별 심층 내용분석까지는 하지 못했으나, 이는 앞으로 계속 할 예정이다. 위 결과를 토대로 다른 신문, 통계자료등의 분석과 아울러 면접법에 의한 사례조사등의 연구가 병행되어 개화기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거환경문제의 변화를 한눈에 알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78, 1990), 한국통계연감 25호, 37호.
- 2) 경제기획원 (1990), 한국의 사회지표 p. 247.
- 3) 金淑鉉(1973), “한국 신문에 실린 여성에 관한 기사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동아일보(1957), 코를 찌를때 마다 당국원망, 9월24일자.
- 5) 동아일보(1964), 소음속의 국립도서관, 9월24일자.
- 6) 동아일보사(1975), 東亞日報社史, 서울:동아일보사.
- 7) 동아일보사(1975), 동아일보색인 1-8권, 서울:동아일보사.
- 8) 박창근(1983), 환경오염 용어해설, 서울:錄苑.
- 9) 朴永圭 外 3人(1990), 環境과 公害, 大邱:嶺南大學校 出版部.
- 10) 尹昨燮(1990), 환경오염개론, 서울:世進社 p. 12~18.
- 11) 李周 (1987), 人間과 環境, 서울:漢陽大學校.
- 12) 李在雨(1986), 農家住宅, 서울:建友社.
- 13) 北村君 近 公夫·定田洋子(1970), 住宅管理學, 東京:朝倉書店 p. 26~27.
- 14) 眞邊春藏(1976), 都市環境と人間, 東京:人間と技術社.
- 15) 日本家政學會(1989), 生活環境論, 東京:朝倉書店 p. 62.

